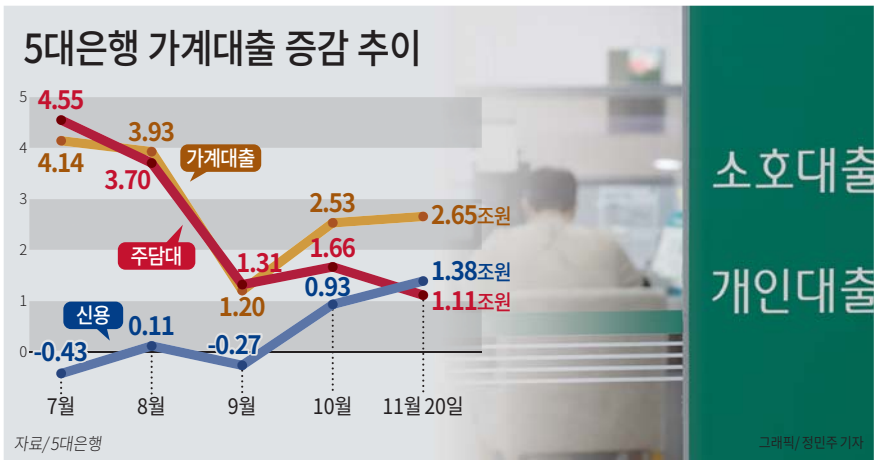




은행 대출창구 닫힐라 연말 ‘막차 수요’ 폭발

가계대출 잔액 한달새 2.6조 늘어
주담대·신용대출 동반 확대 흐름
금리 반등 조짐에 차주 불안 가중
한은 동결 전망 속 연말변동 촉각

연말이 다가오며 은행들의 대출 한도 소진이 현실화되자, 자금이 필요한 차주들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대책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금리가 다시 오를 경우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69조273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766조6219억원)과 비교해 2조6519억원 증가했다. 지난 한 달 늘어난 2조5270억원과 비교해도 많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세대출과 집담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1조7523억원으로 1조1062억원 늘었다. 신용대출 잔액은 106조1173억원으로 같은기간 1조3843억원 증가했다. 2021년 7월 이후(1조8637억원) 4년 4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가계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은행의 대출한도 소진에 따라 대출 창구를 닫는 은행들이 늘면서 막차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2일 비대면 채널에서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구입자금용 주택담보 신규 접수를 막았다. 대면

창구에서도 24일부터 올해 실행분 주택구입 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오는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규접수를 제한한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과 금리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20일 기준 5대은행의 변동성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상단이 6%대를 넘어섰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 연 3.93~5.33% ▲신한은행 연 3.83~5.23% ▲하나은행 연 4.46~5.76% ▲우리은행 연 3.82~5.02% ▲NH농협은행 연 3.63~6.43%를 나타냈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12일 이미 최고 연 6%대를 넘긴 상태다.

금융채 5년물 기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KB국민은행 연 4.11~5.51% ▲신한은행 연 4.00~5.41% ▲하나은행 연 4.78~6.08% ▲우리은행 4.02~5.22% ▲NH농협은행 4.35~6.05%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성과 환율·집값 불안이 맞물리면서 대출금리 상승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27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연 2.50%)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과 집값 불안정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우리은행, ‘새희망홀씨’ 금리인하 폭 확대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첫 조치
성실상환 고객 최대 3%p 금리우대

우리은행은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 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 대출상환 고객에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과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은행은 제도 개선에 따라 새희망

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CB등급 기준) 이하인 고객에 0.3%포인트(p)의 금리우대를 적용한다. 또한 대출 이용 기간 동안 연체 없이 성실 상환 중인 고객은 우리은행 내부등급에 따라 최대 3.0%p의 금리를 추가로 감면한다.

지난해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6374억원 규모의 새희망홀씨 대출을 공급했다. 우리은행은 올해도 지난 3분기까지 5588억원을 공급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로 저신용자와 성실 상환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임기만료’ 제2금융권, 리더십 재편기 돌입

카드·캐피탈·상호금융 인사 주목
규제 강화 속 경영전략 수정 불가피

제2금융권이 리더십 재편기를 맞고 있다. 카드부터 캐피탈, 상호금융까지 주요 회사의 수장 임기 만료로 업권 전반의 경영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캐피탈 등 여신업 대표이사들이 올해 연말 인사 대상에 포함됐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새마을중앙회장, 신탁중앙회장 선거가 각각 내달, 내년 1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내년 초 여신탁회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임기는 지난 10월 5일부로 마무리됐으나, 현재 후임자 선출이 이뤄지지 않아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후임자 선출 지연 배경 중 하나로 협회장 투표권을 행사하는 여신금융협회 이사회 일부 구성원이 연말 인사 대상에 포함된 점이 거론된다. 여신평론 금융협회 이사회는 카드·캐피탈 업계 15곳의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됐다.

가장 먼저 수장 교체가 이뤄지는 곳은

롯데카드다. 롯데카드는 이달 2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새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했다. 내년 초 임기 만료를 앞둔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지난 9월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기 퇴임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온 대표 이사들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최원석 비씨카드 대표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3연임을 이어 온 최 대표의 연임 여부는 불투명하다. 비씨카드의 모회사인 KT가 새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하면서, 사외이사과 자회사를 아우르는 인적 쇄신 기조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캐피탈 업계에서는 빈중일 KB캐피탈 대표, 기동호 우리금융캐피탈 대표, 추광식 롯데캐피탈 대표가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KB캐피탈의 빈 대표는 지난해 1월 취임해 2년 간의 임기를 마쳤으며, 우리금융캐피탈의 기 대표는 올해 1월에 취임해 1년의 임기를 마쳤다. 추광식 롯데

캐피탈 대표는 지난 2021년 말 대표이사로 선임돼 약 4년간 대표이사직을 수행했다.

상호금융권에서도 인사 시즌이 한창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가 내달 중에 시행되며, 이어 내달 1월 신탁중앙회장 선거가 진행된다. 김민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내년 3월, 김윤식 신탁중앙회장은 내년 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규모 인사 이후 금융권 수장들의 경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한다. 제2금융권을 향한 정부 규제 기조가 강화되면서 수익성과 연체율 등을 모두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금융업계 전반적인 인사가 예정된 만큼 많은 곳에서 경영 방식 변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규제 강화 기조 아래 수익성과 건전성을 모두 챙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車 사고시 출고 5년 이하만 중고차 시세 하락 보상”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수리비, 기존 차값 20% 초과해야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고차 시세 하락 시 출고 후 5년 이내, 직전 자동차가액 20% 초과 시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에서 “자동차보험 약관은 사고로 인해 중고차 시세가 실제 하락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 차량의 차령, 수리비를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시세하락분으로 간주해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수리 이후 자동차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험금 청구 분쟁은 민원이 잦은 사례 중 하나다. 소비자가 예상하는 보상액과 실제 배상가능한 금

액 기준 간에 괴리가 있어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액은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시세가 하락한 금액이 아닌,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차령에 따라 수리비용의 10~20%)”이라고 안내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약관상의 시세하락 손해는 피해차량의 중고차시장에서의 시세 하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해야 지급된다고 유의사항을 재확인했다. 운전자들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시세하락 보상 청구 시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거래 시세가 하락한 금액을 시세하락 손해로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관련 원칙은 차량 수리비의 일정 부분을 지급

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고 발생으로 중고차 시세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수리비용이 기존 차량 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관련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출고 가격이 비싼 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시세 하락분이 클 수 있지만, 시세 하락 보상 여부는 수리비 규모로 책정되는 만큼 관련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금감원은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는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했어도 사고 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라면서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해 차량의 차령, 수리비를 감안해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이달 마지막 주 전국 2802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성남시 ‘북정역에피트’ 등 청약
모델하우스 인선 등 8곳 오픈

11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280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2034가구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북정동 ‘북정역에피트’, 경기 시흥시 거모동 ‘시흥거모지구대방엘리움더루체Ⅰ·Ⅱ’,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다운2지구유성한내들레두포레’ 등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경기 성남시 북정동 일원(성남북정1지구 B1블록)에서 ‘북정역에피트’가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6개동,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총 315가구 중 이주대



두산위브더제니스센터러천안 조감도.

책 대상자(3가구)를 제외한 31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8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북정역과 8호선 남위례역이 가깝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등을 통해 서울 도심과 수도권 내 이동이 편리하다. 서울 송파구와 위례신도시의 경계에 위치해 생활인프라를 함께 공유

할 수 있다.

해당 단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간분양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청약 당첨 시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 3년(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전매금지) ▲거주의무 3년이 부여된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8단지’, 인천 서구 원당동 ‘인천검단호반써밋Ⅲ’, 충남 천안시 청당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터러천안’ 등 8곳이 오픈 예정이다.

두산건설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일원에서 ‘두산위브더제니스센터러천안’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동, 전용면적 84㎡ 총 120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지하철 1호선·경부선 천안역이 위치하며, 경부고속도로 등을 통해 경기 팽택, 안성, 오산시 등 수도권 진출 입이 용이하다.

/안상미 기자 smahn1@